대입 학생부전형 공정성 · 신뢰도 관건

광주시교육청 대입정책 포럼

광덕고 신희돈 교사 주제발표

대학입시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어 블라인드 평가 도입과 학교·교사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교육청이 22일 오후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제1차 광주 대입정책 포럼에서 광덕고 신희돈 교사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의 기록과 평가의 공정성, 신뢰성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사는 "일부 대학이 학생부종합전형 서류심사와 면접에서 부모 직업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어 '금수저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고 학원 컨설팅을 통해 내역 조작 가능성이 있다"며 "내신 상위권 학생에게 교내 상을 몰아주는 현상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 교사는 "경남의 한 고교 학생은 1년에 224개의 상을 수상한 반면 다른 학교의 학생은 활동이 우수하더라도 수상 경력이 전무하는 등 학교와 교사에 따라 복불복 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학생부 기재요령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다"고 밝혔다.

신 교사는 "대입 전형에서 학생부의 중요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기록은 점점 획일화되고 있어 그 결과 학생 개인보다 학교의 영향력이 증가해 불공정한 고교 등급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수업 방법의 질적 개선이 없는 학생부종합전형 확대는 학력 저하, 신뢰도 약화, 공정성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 교사는 "금수저 전형 논란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블라인드 평가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학부모 개인정보를 기록하지 않게 수정해야 한다"며 "학교와 교사에 따라 달라지는 복불복 전형을 피하려면 학교와 교사의 자정 노력, 기재역량 강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교사는 "평가기관인 대학 측에서도 유의미한 수상이나 활동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수상 남발과 사교육 유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보다 명확한 평가 근거와 객관적 성적산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사는 "구조적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현실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학생부 항목을 개선해야 한다"며 "항목 조정이 이뤄지면 기재예시의 문제, 연도별 해설의 과대 해석, 사교육 기관의 개입 요소가 상당 수 줄어들 것이다"고 전망했다.

중앙대 차정민 교수는 학생부종합전형 개선방안으로 학교 교육 긍정적 변화 유도, 평가자료 작성 부담 완화, 평가 공정성 제고, 평가 전문성 향상 등을 제시했다.

광주시교육청은 대입 정책포럼을 3차례에 걸쳐 진행하며 논의 결과를 대입제도 개편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조인호 기자

광주 · 전남 내일까지 눈

예보…당분간 최강 한파

광주와 전남에 눈과 함께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예보됐다.

22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광주와 전남은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고, 차츰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밤부터 서해안과 내륙에 비 또는 눈이 오겠다고 예보했다.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예상 적설량은 1~3㎝, 광주와 전남지역 예상 강수량은 5㎜ 안팎이다.

눈은 23일 오후부터 다시 시작돼 24일 낮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 서해안 2~7㎝, 광주와 전남 내륙에는 1~3㎝의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분석됐다.

비와 눈이 온 뒤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겠다.

23일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24일부터 주말까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으며 낮 기온도 영하에 머물러 추위가 이어지겠다"며 "동파와 건강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눈이 오는 곳에서는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다"며 "오늘 밤부터 서해남부먼바다를 시작으로 내일과 모레는 서해남부전해상과 남해서부먼바다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기상 예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응원하며 눈 내리는 22일 오후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철책선에 달린 단일기와 소원띠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환경단체 "무등산 자락에 고층아파트 건립 안돼"

환경단체가 광주 소태동 무등산 자락에 추진 중인 고층 아파트 건립을 반대하고 나섰다.

광주환경연합은 22일 성명을 내고 "무등산 자락인 동구 소태동 일원에 대한 종(種)상향과 고층 아파트 건설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종상향은 1·2종 일반주거지역을 2·3종으로 한 단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종상향이 이뤄지면 용적률이 높아지고 층수 규제가 완화돼 재건축 등의 사업성이 개선된다.

현재 아파트 건설이 거론되고 있는 소태동 459-1번지 일대 2만㎡ 부지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무등산과 연결된 구릉 지대다. 자연녹지, 보전녹지, 준보전산지 등으로 지정돼 있다.

사업을 추진하는 측이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용도지역 상향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동구청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는 "수년 전부터 건설업체가 고층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조합 설립 절차 등을 추진하면서 지역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며 "아파트 건설로 야기될 지반 안전문제 뿐만 아니라 무등산 자락 구릉지 지형과 환경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자연녹지 등 인근 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고층 개발은 적합하지 않다.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 혼잡, 도로여건, 인근 학교 등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며 "특히 주민들의 반발에도 무리한 종상향과 아파트 건설을 허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만약 개발을 하더라도 저층과 저밀도, 주변 경관, 토지 이용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종상향은 이를 무력화시키고 연쇄적 난개발을 야기할 수 있다. 종상향과 고층 아파트 개발은 절대 안 된다"며 "인근 주민과의 이해와 합의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남규 기자

눈 내리는 날 1t트럭 4대 훔친 30대 2명 구속

인적이 드문 눈이 내리는 날을 노려 화물차량 4대를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무안경찰서는 22일 1t트럭 4대를 잇따라 훔친 혐의(특수 절도)로 이모(31)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17일 오전 2시께 전남 무안군 한 마을 앞에 세워진 A(64)씨의 1t 트럭를 훔치는 등 10일부터 이날까지 차량 4대를 연속으로 훔쳐 고철을 수집하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눈이 많이 내리는 날을 범행 시간으로 계획했으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의 번호판을 눈으로 가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골에서 사용되는 1t트럭은 차량 내부에 열쇠가 들어있거나 문을 잠그지 않은 점을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훔친 트럭을 이용해 공장 등에 버려져 있는 고철을 모아 고물상 등에 팔아 20만~3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훔친 차량은 하루정도만 운행한 뒤 한적한 곳에 버리고 또다른 차량을 훔쳤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훔친 차량을 다른 나라에 팔려는 의도가 있었는 지 등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무안=이기성 기자

여수서 마을주민 흉기로 찔러 살해 40대 검거

마을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여수경찰서는 21일 마을 주민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4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9시20분께 여수시 묘도동 한 주택에서 B(55)씨의 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여수=송기홍 기자

무인도 야생 흑염소 57마리 포획 3명 검거

보령해양경찰서는 22일 무인도에 서식하는 야생 흑염소를 불법으로 포획해 팔려던 혐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어민 A(5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19일 충남 보령시 오천면의 한 무인도에서 사는 야생 흑염소 57마리를 불법으로 제작한 그물을 이용해 포획한 뒤 어선으로 몰래 들여와 보신원으로 판매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아무리 주인이 없는 야생 동물일지라도 마구잡이로 포획하는 것은 잘못이며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포획하여야 한다"며 "무인도에서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염소를 보신용으로 은밀한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한 4명 검거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일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A(26)씨를 구속하고 홍보책임자 B(25)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17일부터 최근까지 중국과 국내에 사무실을 차린 뒤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주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300명의 회원을 모집해 176억 원 규모의 도박판을 주선한 뒤 22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판돈 거래에 이용한 대포통장 14개를 미국 하와이로 보낸 뒤 다시 중국과 국내로 들여오는 방법으로 경찰 추적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도박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범죄수익금 6500만 원과 범행에 이용한 컴퓨터, 휴대폰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중국과 국내에서 있는 총책 등 운영자 6명을 추적하고 있다.

뉴시스